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6.8

인프라 협상 불안 Vs. 바이오젠의 힘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경제 회복과 15% 최저 법인세 이슈가 충돌하며 혼조 출발. 특히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며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약세를 보이며 출발
- 이후 인프라 협상 논란이 부각되자 산업재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다우는 하락 전환 했으나, 바이오젠(+38.34%) FDA 승인 소식에 나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
- 이후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된 가운데 지수는 보합권 혼조 마감
- 다우 -0.36%, 나스닥 +0.49%, S&P500 -0.08%, 러셀20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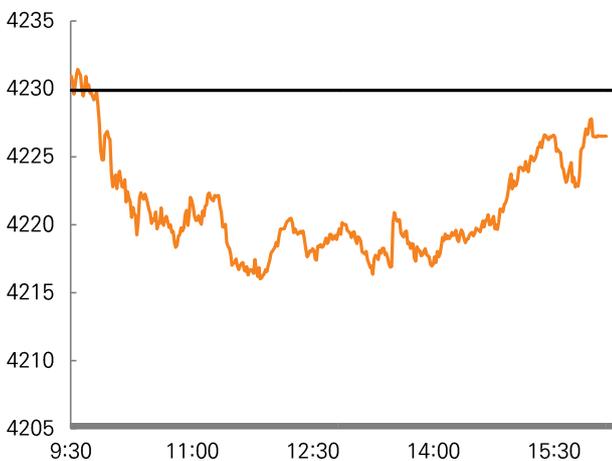
특이 종목

- 바이오젠(+38.34%)은 FDA의 알츠하이머 치료 승인 소식 발표로 급등
- 같이 개발에 나섰던 일본 제약회사인 에자이(+56.27%)는 OTC 시장에서 급등
- AMC 엔터(+14.80%), 블랙베리(+13.78%), 게임스톱(+12.74%) 등 상승 지속
- 애플(+0.01%)은 WWDC에서 iOS 15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변화 제한
- 캐터필라(-1.75%)는 상승 출발 했으나 인프라 투자 관련 마찰이 확산되자 하락 전환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5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0.4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2% 하락. 이를 종합하면 KOSPI는 약 보합으로 출발 예상
- 미국 증시가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가 상승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점은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한편, 미 증시가 개별 기업들과 업종별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차별화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 또한 관련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차별화 장세 전망
-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ECB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 변수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선물옵션만기일(목)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 지수종류 | Close | D-1 | 지수종류 | Close | D-1 |
|---------|-----------|-------|------|-----------|-------|
| KOSPI | 3,252.12 | +0.37 | 홍콩항셱 | 28,787.28 | -0.45 |
| KOSDAQ | 985.86 | -0.17 | 영국 | 7,077.22 | +0.12 |
| DOW | 34,630.24 | -0.36 | 독일 | 15,677.15 | -0.10 |
| NASDAQ | 13,881.72 | +0.49 | 프랑스 | 6,543.56 | +0.43 |
| S&P 500 | 4,226.52 | -0.08 | 스페인 | 9,163.60 | +0.83 |
| 상하이종합 | 3,599.54 | +0.21 | 그리스 | 902.02 | +0.05 |
| 일본 | 29,019.24 | +0.27 | 이탈리아 | 25,824.71 | +0.99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인프라투자 ②법인세 ③바이오젠 ④밈 주식

미국 인프라투자 관련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음. 장중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과의 인프라 협상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타협 의지’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 그와 함께 미국의 일자리 계획과 인프라 법안 통과를 위한 길은 많이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이를 처리 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초당파 의원 그룹이 이번주에 5년간 8,8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짐. 관련 자금 조달 중 일부를 탄소세를 걷어 해결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졌고, 이러한 부분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음. 대체로 인프라 투자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출발 했던 산업재 업종이 대부분 약세로 전환하며 다우 지수 하락을 부추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법인세 최저 세율 15%에 합의. 이후 7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를 확대 적용하고 10월 OECD 회의에서 최종 확정 할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법인세 회피를 위해 노력해 왔던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 물론 최종 합의까지는 법인세를 낮춰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 왔던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으나 정책 합의는 가능할 듯

한편, 영업이익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 납부 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에서 기술주, 반도체 등 세금을 낮게 내왔던 기업들의 장 초반 약세도 뚜렷

바이오젠(+38.34%)은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에 대한 품목허가가 승인 되었다고 발표. 기존 약물은 증세 완화를 하는데 그치지만 아두카누맙은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고 알려짐.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아두카누맙이 논란도 많고 효능 또한 혁신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좀더 지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 일각에서는 아두카누맙이 허가 승인이 되었더라도 일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들은 물론 바이오 업종 강세 요인

오늘도 AMC 엔터(+14.80%)를 비롯한 일명 밈 주식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음. 문제는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미국 증권거래소가 성명서를 통해 “주가 조작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 중이다” 라고 언급한 가운데 “증권법 위반이 발견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할 것” 이라고 발표. 그렇지만 이러한 거래소의 발표에도 관련 종목군의 변동성은 지속

대체로 미 증시는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양상이며 개별 종목, 업종들이 이슈에 따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이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진행 될 것으로 전망



산업재 하락 전환 Vs. 바이오주 상승 전환

바이오젠(+38.34%)은 FDA의 알츠하이머 치료 승인 소식 발표로 급등. 바이오젠과 같이 개발에 나섰던 일본 제약회사인 에자이(+56.27%)는 OTC(장외거래) 시장에서 급등. 바이오젠 경쟁 회사인 일라이릴리(+10.15%)도 강세를 보였으며 카사바사이언스(+5.35%), 알렉토르(+7.63%)등도 급등. AMC 엔터(+14.80%), 베드 배스 앤 비온드(+7.16%), 블랙베리(+13.78%), 게임스톱(+12.74%) 등 일명 밌 주식들은 미국 증권 거래소가 불법 거래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지속.

애플(+0.01%)은 WWDC에서 iOS 15 발표 불구하고 변화 제한. 테슬라(+1.01%)는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에너지 사업부를 책임지던 RJ 존슨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중 하락. 더불어 주말에 머스크 CEO가 모델S 프레이드가 너무 좋아 프레이드+의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한 점도 부담. 그러나 오후 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결국 상승 전환 성공. 캐터필라(-1.75%)는 상승 출발 했으나 인프라 투자 관련 마찰이 확산되자 하락 전환. 인프라 관련주 중 하나인 US 콘크리트(+29.28%)는 벌칸 머티리얼즈(-0.91)에 피 인수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 주요 ETF | | | |
|--------------------|--------|----------------------|--------|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0.96% | 대형 가치주 ETF(IVE) | -0.27% |
| 에너지섹터 ETF(OIH) | -2.35% | 중형 가치주 ETF(IWS) | -0.21% |
| 소매업체 ETF(XRT) | +1.12% | 소형 가치주 ETF(IWN) | +1.10% |
| 온라인소매 ETF(IBUY) | +1.51% | 대형 성장주 ETF(VUG) | +0.19% |
| 금융섹터 ETF(XLF) | -0.65% | 중형 성장주 ETF(IWP) | +0.52% |
| 기술섹터 ETF(XLK) | -0.02% | 소형 성장주 ETF(IWO) | +1.67%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0.45% | 배당주 ETF(DVY) | -0.21% |
| 인터넷업체 ETF(FDN) | +1.05%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40% |
| 리츠업체 ETF(XLRE) | +0.94%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47%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14% | 미국 국채 ETF(IEF) | -0.08% |
| 바이오섹터 ETF(IBB) | +3.44% | 하이일드 ETF(JNK) | +0.07% |
| 헬스케어 ETF(XLV) | +0.36% | 물가연동채 ETF(TIP) | -0.22% |
| 곡물 ETF(DBA) | -0.05% | Long/short ETF(BTAL) | +0.62% |
| 반도체 ETF(SMH) | -0.51% | 모멘텀 ETF(MTUM) | +0.03% |

| US Sector Index | | | | |
|-----------------|----------|--------|--------|--------|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에너지 | 414.25 | -0.38% | +6.27% | +2.37% |
| 소재 | 543.86 | -1.23% | -0.63% | -1.40% |
| 산업재 | 882.26 | -0.69% | -0.47% | -0.92% |
| 경기소비재 | 1,365.69 | -0.05% | -1.04% | -3.76% |
| 필수소비재 | 731.38 | -0.18% | +0.82% | +0.88% |
| 헬스케어 | 1,425.60 | +0.33% | -0.82% | -1.32% |
| 금융 | 633.74 | -0.63% | +0.57% | +1.03% |
| IT | 2,455.23 | -0.02% | +1.17% | +0.61% |
| 커뮤니케이션 | 260.04 | +0.48% | +1.04% | +0.86% |
| 유틸리티 | 331.02 | +0.19% | +0.44% | -1.25% |
| 부동산 | 280.72 | +0.91% | +3.98% | +6.05%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속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5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10.4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2% 하락. 이를 종합하면 KOSPI는 약보합으로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하회하고 지난달 수치 상향 조정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며 상승 출발. 그 뒤로 한국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일 앞두고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가 상승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점은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편, 미 증시의 특징은 개별 기업들과 업종별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차별화를 보였다는 점. 바이오 업종은 바이오젠 효과로, 리츠 금융 회사들은 제한적인 금리 변화 기대로 상승 한 반면, 산업재의 경우 인프라 투자 논란이 확산되자 하락했으며, 금융주 또한 국채 금리 움직임의 영향으로 하락 하는 등 개별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임. 이를 감안 한국 증시 또한 관련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ECB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 변수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선물옵션만기일(목)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지표 개선

미국 5월 고용동향지수(ETI)는 지난 달 발표(104.31) 보다 개선된 107.35로 발표. 다만, 지난달 수치가 105.44에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 고용 개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중국 5월 달러화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27.9%, 수입은 전년 대비 51.1% 증가해 예상을 하회. 그렇지만 수입의 대규모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

유로존 6월 섉덱스 투자자신뢰지수는 지난 달 발표(21.0)는 물론 예상(26.0)을 상회한 28.1을 기록



WTI, 70달러 상회 후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하반기 수요 증가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며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 한 때 WTI 기준 70달러를 상회. 더불어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도 18일 이란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승 요인.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하락 전환하며 마감

달러화는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둔화 여파가 이어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더불어 연준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반면, ECB 일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화 멕시코 페소 등 신흥국 환율 또한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와 소비자물가지수 결과를 기다리며 보험권 등락. 대부분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 특히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인프라투자 관련 마찰이 진행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보험권 혼조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혼조 양상. 곡물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이번 주 작황을 위한 도움이 되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 영향으로 소폭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67%, 철근은 2.24% 하락.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69.23 | -0.56 | +4.39 | Dollar Index | 89.963 | -0.19 | +0.15 |
| 브렌트유 | 71.49 | -0.56 | +3.13 | EUR/USD | 1.2192 | +0.21 | -0.29 |
| 금 | 1,898.80 | +0.36 | -0.34 | USD/JPY | 109.27 | -0.23 | -0.28 |
| 은 | 28.018 | +0.44 | +0.01 | GBP/USD | 1.4181 | +0.17 | -0.22 |
| 알루미늄 | 2,426.00 | -1.18 | -2.30 | USD/CHF | 0.8973 | -0.23 | -0.18 |
| 전기동 | 9,900.50 | -0.55 | -3.49 | AUD/USD | 0.7758 | +0.25 | +0.31 |
| 아연 | 2,999.50 | -0.37 | -1.98 | USD/CAD | 1.2077 | -0.06 | +0.11 |
| 옥수수 | 602.75 | +1.90 | +10.49 | USD/BRL | 5.0356 | -0.27 | -3.63 |
| 밀 | 680.00 | -1.13 | +2.49 | USD/CNH | 6.3866 | -0.09 | +0.22 |
| 대두 | 1,440.00 | +0.31 | +4.90 | USD/KRW | 1112.90 | -0.32 | +0.18 |
| 커피 | 162.20 | -0.89 | -1.28 | USD/KRW NDF1M | 1110.49 | -0.01 | +0.22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미국 | 1.570 | +1.70 | -2.39 | 스페인 | 0.472 | +2.10 | +1.10 |
| 한국 | 2.155 | -1.20 | -2.50 | 포르투갈 | 0.468 | +2.10 | +1.00 |
| 일본 | 0.083 | -0.40 | -0.40 | 그리스 | 0.825 | +1.10 | +0.30 |
| 독일 | -0.198 | +1.50 | -1.10 | 이탈리아 | 0.914 | +4.20 | +0.6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